

## 한국의 고대 제천의식에서 보여지는 집단무(集團舞) 연구

신효영\*

I. 서론

II. 고대 제천의식과 집단무의 양태

III. 집단무에서 보여지는 기능 및 미의식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춤이란 보편적인 인간의 현상이자 다양한 문화양상 중 하나로 타 예술장르와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춤은 인간의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의례나 제의 속에서 얻어낸 사회적 한 형식이기도 하기에 문화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원시 제정일치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춤은 독립된 문화양상이 아니라, 종합 예술체(Total Art)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고대의 제천의식은 정치, 경제, 군사, 사법적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적 집단신명의 역동적 복합 문화현상으로 천신(天神)을 모시고 연일 밤낮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진수(陳壽, 233-297)가 쓴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 東夷傳)에는 고대 제천의식에 관한 기록이 관찰된다. 부영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등은 한국사를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한국의 고대 제천의식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기능의 문제로 들어가면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고대제천의례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된 집단무(集團舞)의 특징을 통해 고대 제천의식의 연희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삼국지』에 기록된 집단무의 지극히 짧은 언표들을 한국 춤의 원류로 삼고, 이를 단초로 그들의 춤 속에서 한국인의 정서적 의식과 감정 등 미의식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민족의 고대 제천의식 속 춤의 기록과 형태를 찾아 그 시대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고 집단무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표출하고자 했는지 그들만의 특징적 미의식을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그러나 고대의 제천의식에 사용된 집단무의 형태는 악·가·무(樂·歌·舞) 미분화의 양태를 띠므로 춤만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무용사 연구는 사료의 부족과 기록

1) 부산대학교 대학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 shy7499@naver.com

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궁중무의 경우 기록이 존재하지만, 민중에서 추어지는 집단무의 경우 몸에서 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그것을 객관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장사훈<sup>1)</sup>과 성경린<sup>2)</sup>의 문헌사 연구와 정병호<sup>3)</sup>의 현장탐구연구는 한국 춤의 역사와 원류를 밝히는 초석이 되었으며, 김매자<sup>4)</sup>와 송수남<sup>5)</sup>의 한국무용사 교재의 정비는 한국 무용사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철순은 “우리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춤을 사랑한 민족”<sup>6)</sup>이라는 전제하에 실증적인 문헌과 유물, 유적을 제시하며 시대마다 독특한 춤 문화를 해석, 한국 춤의 궁지를 심어 주었다. 이병옥은 ‘고대한국무용사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고대의 제천의식에 행해 진 춤의 명칭을 ‘신맛이 북춤’, ‘하늘 춤’, ‘솟대 춤’, ‘동명신 춤’ 등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재해석하며 이를 후대에 등장한 춤들과 연계하여 정리하고 있음<sup>7)</sup>이 돋보인다.

오래된 중국의 기록<sup>8)</sup>들 역시 한 걸같이 한국인들은 ‘음주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 빼놓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춤추고 노래 부른 대목이 여러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한민족이 춤을 사랑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국인들은 물론 다른 민족들과 아주 다르게 구별되는 큰 특징이자 우리민족의 예술성을 주변 국가들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문헌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나, 문헌기록이 저조한 고대 무용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고대 사서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인류학적 관점, 민속학, 고고학 등을 통원(通源)하는 한편, 당시 우리 민족의 종교관이나 우주관을 알 수 있는 사상이나 설화를 중심으로 이를 고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고대’의 개념은 한민족의 원류인 고조선과 성읍(城邑)국가시대<sup>9)</sup>로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이전의 시기로 제한하며, 그 기록이 존재하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경우 원전 텍스트의 접근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바, 한국 역사학의 최고 권위자인 전해종의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에 의지한 바가 크다. 또한 제천의식과 그 의례 속에 추어졌던 집단무의 명확한 구분이나 춤 형태(춤사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문헌상에 제시되어 있는 춤추는 광경이나 분위기를 묘사한 문구를 통해 이들의 공통점과 특징을 추출, 고대 집단무속에 잠재된 우리민족의 감정과 의식과정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집단무의 문화적, 미학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타 연구와의 변별점이자 본 논문의 가치라 할 것이다.

1) 장사훈(1977), 『한국전통무용연구』(서울: 일지사).

2) 성경린(1984), 『한국전통무용』(서울: 일지사).

3)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서울: 집문당).

4) 김매자(1977), 『한국무용사』(서울: 금연재).

5) 송수남(1988), 『한국무용사』(서울: 도서출판 금광).

6) 김철순(1978), 한국의 춤(1), 『춤』1월 호, p.56.

7) 이병옥(1993), 고대 한국무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漢書』, 『後漢書』, 『三國志』, 『魏書』, 『梁書』, 『周書』, 『南史』, 『北史』, 『新唐書』, 『南齊書』, 『晉書』, 『隋書』 등.

9) 성읍국가(城邑國家)란 B. C. 4세기 경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기존의 씨족사회가 통합되고, 고조선 붕괴 후 고조선의 주변국들이 독립국으로 변모, 만주대벌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여러 성읍국들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부여, 고구려, 옥저, 예, 삼한(마한, 진한, 변한) 등이 있다.

## II. 고대 제천의식과 집단무의 양태

고대 제천의식은 씨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 생활의 영위를 위해 하늘(天)에 감사하고 축원하는 제사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고 반드시 가무(歌舞)가 병행되었다는 관점에서 그 배경과 맥락을 고찰하는 것이 무용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II장은 집단무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삼한의 계절제와 제의 속에서 한민족의 가무가 어떤 형태로 연희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의 고대 제의풍습을 전해주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그 내용이 선명한 것으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 있다. 이는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그 안에 우리 민족 고대의 제천의례에 대한 간단한 기록들이 수록되어있다. 단편적인 기록인 만큼 중국인들이 보기에 특이하고 경이로운 사실만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

부여의 영토는 동북쪽의 흑룡강을 경계로 하여 흑룡강성(黑龍江省) 전부와 내몽고(內蒙古) 동북부 일부 및 길림성(吉林省) 북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하(遼河) 상류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안정된 경제기반과 강한 군사력을 기초로 한 국력을 배경으로 서기 1세기 초까지는 패자(覇者)의 위치에서 고구려를 소국으로 대하면서 화친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중국과의 전쟁과 고구려 광개토왕(391-412)의 침략을 받아 64개의 성(城)과 1,400여 개의 부락을 잃게 됨으로써 국력이 급속히 쇠약하여 494년에 부여 왕과 왕족이 고구려에 투항함으로써 고구려에 병합되었다<sup>10)</sup>고 한다.

음력 정월(殷正月)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며칠씩 음주가무(飲酒歌舞)를 벌이는데 이를 영고(迎鼓)라 하였다. 이때에 형옥(刑獄)을 끊고 죄수를 석방하였다.... 군사(軍事)가 있을 시에도 또한 하늘에 제사했는데, 소를 잡아 그 발굽(牛蹄)을 봄으로써 길흉(吉凶)을 점쳤다.<sup>11)</sup>

은정월이란 ‘은(殷)나라 역법(曆法)으로 정월’을 말하므로 곧 음력 12월임을 알 수 있다. 음력 12월은 계절상으로 매우 추운 시점이며 농산물의 수확기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수렵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부여가 은력(殷曆)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사료의 기록으로 보면 정월을 강조했음으로 부여의 영고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원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중대회의 규모<sup>12)</sup>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본 논문은 ‘국중대회’의 성격을 ‘군왕’이 주관하는 수도를 비롯하여 주요 읍락에서 전국적으로 거행되는 거족적 행사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연일 음식’ 하였으므로 물자가 매우 풍부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축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재산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통합과 왕권의 존엄성을 가시화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10) 윤내현(1988), 고조선과 삼한의 관계, 『한국학보』52집, pp.119-124.

11) 『삼국지』 위지 동이전 부여조 “以殷正月祭天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 是時擲刑獄, 解囚徒. 有軍事亦祭天 殺牛觀 殺牛觀蹄 以占吉凶.” (전해중(1985),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서울: 일조각), p.12 재인용).

12) ‘國’을 수도로 해석할 경우 부여의 수도에 나라 안의 사람들이 크게 모였다고 해석 가능하나 광대한 국토에 산재한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마도 각 고을의 대표와 수행원 집단들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석한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민홍(1999), 『한국 민족 악무와 예악사상』(서울: 집문당), p.130.

13) 김광식(1989), 한국고대의 제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1.

또 ‘가무’를 병행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무는 한국고대제사의 전통인 오신(娛神)적, 오인(娛人)적 기능을 수행하고 신인동락(神人同樂), 군신여민동락(君臣與民同樂)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무의 정확한 형식은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이때의 가무는 원시집단무용의 형태일 것<sup>14)</sup>이라는 추정과 오늘날 무당들이 정월달에 춤을 추며 사제하는 별신굿과 유사하며 농경의식의 지신밟기인 무속 춤이 아닌가 하는 추측<sup>15)</sup> 등이 대두되고 있다.

12월 중 ‘연일 음주가무’하였으나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정확하게 상정할 수는 없지만 ‘연일’의 기간은 아마도 야간조명 관계상 ‘보름달을 전후한 며칠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죄수를 석방하는 사면(赦免) 행위는 ‘군왕’이 은전(恩典)을 베풀으로써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목적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진 ‘군사’시에도 역시 제천을 거행했다는 대목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제점<sup>16)</sup>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신라에서도 그러한 관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부여의 제천행사의 명칭을 ‘영고(迎鼓)’라고 한 대목이다. 『후한서』에 영고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영고는 무축신사(巫祝神社)에서 나온 말로서 무당을 일컬어 ‘단군’ 또는 ‘천군’이라 불렀고, 무당의 역할은 춤을 추면서 기양재복(祈穰災福)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7)</sup> 영고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鼓)을 두드리며 신을 맞이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소고춤이나 북춤, 농악에서 보여지는 춤과 악기가 병행되는 형태임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는 가무에서 북이나 소고, 징 등 타악기를 사용함은 타악기가 갖고 있는 기능적 효과 외에도 원시사회 무속(巫俗)의 잔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무당이 점신하기 위해 타악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삼국지』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동맹(東盟)’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 특히 고구려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목으로 ‘남쪽은 조선과 접해 있으며’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시기를 적어도 고조선이 멸망한 기원전 108년 이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국민은 가무를 좋아했고 서울과 시골에서 저녁에 남녀노소 어울려 가무화를 즐겼다(高句麗 其民 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相聚, 相就歌舞戲).... 시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국중대회를 열어 이른바 동맹(東盟)이라 하였다. 그 때의 의복은 모두 금수금은(錦繡金銀)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라 동쪽에는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이름을 수혈(隧穴)이라 하였다. 시월 국중대회에는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으로 돌아와서 높은 곳에 모시고 제사했는데 신좌(神座)에는 목수(木隧)를 모시었다. 그리고 감옥이 없었다.<sup>18)</sup>

14) 김매자(1995), 『한국무용사(보완판)』(서울: 삼신각), p.19.

15)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서울: 집문당), p.61.

16) 우제점(牛蹄占)은 소를 죽여 그 발굽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원시사회의 관습으로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합쳐지면 길하다고 해석한다. 신라 법흥왕 시대에 제작된 <蔚珍 鳳坪 新羅碑>와 <迎日 冷水里 新羅碑>에서도 동일한 기록이 나타난다. 이는 상고시대 풍습이 신라에서도 이어지는 중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17) 『후한서』 “名曰 迎鼓 是即巫祝神事 而其巫即主祭之神之人 是之謂檀君或天君也 蓋巫者 以巫神 祈穰災福者也.” (전해중(1985), p.12, 재인용).

18)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 조 “高句麗 其民 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相聚, 相就歌舞戲...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 ... 其國東有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 置木隧于神坐, 無牢獄.” (전해중(1985), p.18, 재인용).

첫 번째 기사(記事)는 백성들의 평상시 일반적인 생활풍습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무를 좋아했고 특히 날이 저문 밤에 남녀가 어울려 가무회를 즐긴 것으로 되어 있다. 늦은 밤에 남녀가 어울려 가무회를 즐기는 풍습은 해석에 따라 자유분방과 음란 등 그 의미가 상반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의 눈에는 특히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으로 비취졌다. 중국 측의 여러 고서에 보면 고구려의 풍속이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야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양서』의 기록도 있고 “풍속이 음란하고 가무를 즐겨 남녀가 저녁에 떼 지어 노는데 귀천의 구분이 없다.”는 『위서』의 기록도 있다. 또 “남녀가 한 넷물에서 목욕하고 같은 방에서 잠잔다. 풍속이 음란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유녀(遊女)가 있는데 그녀에게는 정해진 남편이 없다”는 『주서』의 기록 등에서 고구려 일반 백성들의 생활풍속을 특히 음란하다고 기록한 대목<sup>19)</sup>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인들이 성문화 차이로 인해 고구려의 성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는 남녀의 자연스런 교제와 접촉이 허용되는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러운 풍속이며 결코 음란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가무 외에도 희(戲)가 언급되어 있는데 고대의 희는 ‘놀이’ 또는 ‘곡예’, ‘씨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천의식 속에는 놀이(play)의 기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 기사는 중국대회 동맹에 관한 기록인데 10월에 지행됨으로써 부여의 영고와 시기상의 차이가 있다. 당시 고구려가 어떠한 역법을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0월의 의미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회(公會)라 부르고 금수금은(錦繡金銀)의 의복을 입었다고 했으니 왕실과 귀족 등 지배계층이 참가했던 것으로 단순한 민속행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축제가 민속과 왕실행사로 구분되는 현상은 왕권이 강화되는 절대왕정의 한 특징<sup>21)</sup>이므로 이때 고구려의 왕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몽의 고구려 건국이 기원전 37년이므로 당시의 왕은 천군(天君)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천의식의 명칭이 ‘동맹(東盟)’이라는 점에서 그 어원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천신으로 모시는 것에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호상은 동맹을 ‘새맹새=동녘맹새=한얼맹새’라고 풀이하였고, 이병옥의 경우 “맹(盟)을 명(明)의 이두문자로 풀어서 새벽신이라 하고 그 춤을 ‘새벽춤’이라고 정의”했으며 “고구려 춤은 제천의식과 관련이 있어 예술성 보다는 실제생활과 관련하여 대중성이 풍부한 춤임을 알 수 있다.”<sup>22)</sup>고 하였다.

예의 ‘무천(舞天)’과 관련된 예조의 기록 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항상 시월에는 하늘에 제사했는데 주야로 음주가무(飲酒歌舞)하였으니 그 이름을 무천(舞天)이라 하였다. 또 호랑이를 신(神)으로 제사했다.<sup>23)</sup>

19) 『梁書』東夷列傳 高句麗條, 『魏書』列傳 高句麗條, 『周書』異域列傳 高句麗條에 기록 (강봉룡(2014), ‘섬의 인문학’ 담론, 『도서문화』44, p.26 재인용).

20) 김광식(1989), p.37.

21) 손진태(1948), 『조선민족사개론』(서울: 을유문화사), pp.60-75.

22) 이병옥(1993), p.84.

23) 『삼국지』위지 동이전 예조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전해중(1985), p.27. 재인용).

기사는 비교적 소략하지만 예의 제천의식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10월에 거행되었으며, 주야로 음주 가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무의 형태는 원시집단무용의 원형으로 고대 무속의 형태를 띤 것으로 추측된다.<sup>24)</sup>

특히 호랑이를 신으로 삼아 제사 드렸다는 대목은 단군신화를 연상시킨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하여 환웅께 간청했다는 단군신화의 기록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환웅이라는 새로운 권력자와의 갈등 및 융화, 사회형성 과정에서 호랑이 부족이 패배하여 동쪽으로 이동해 간 역사적 사실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흔히 동예(東濊)라고도 하는데 이는 예가 동쪽으로 이동한 후 동예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한계의 제사 및 농경의식을 기록한『삼국지』위지 동이전 한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오월에 파종(播種)을 마치면 귀신(鬼神)에게 제사했는데, 군중이 모여 가무음주(歌舞飲酒)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다. 그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서서 서로를 따르며 땅을 디디면서 손발을 올렸다 내리며 장단을 맞추는 것이 흡사 탁무(鐸舞)와 유사했다. 시월에 농사가 끝나면 또 이러 하였으며, 귀신을 숭배하되 국읍(國邑)에 각기 한 사람을 세워 천신(天神)에게 제사하는 것을 주관케 했는데 그를 천군(天君)이라 불렀다. 또 모든 나라에 각각 별읍(別邑)을 두어 이름을 소도(蘇塗)라 하며,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겼다. 누구든지 도망하여 거기에 들어가면 데려나오지 못했다.<sup>25)</sup>

첫 번째 기사를 통해 볼 때 삼한에서는 5월과 10월에 농경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제귀신(祭鬼神)이라 하였으니 북방계의 제천과 같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우제를 비롯하여 농경의례가 흔히 하늘에 제사하므로 삼한의 계절제도 제천의식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노소가 무리 지어 주야로 가무 음주하는 모습에서 제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놀이’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북방계의 기록에는 단순히 ‘가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 그 형태를 알 수 없었으나 여기에는 무용의 형태와 절주(節奏)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탁무(鐸舞)<sup>26)</sup>와 비슷하다고 했다.

집단무의 형태는 대략 수십 인이 함께 일어서서 서로를 따르며 땅을 딛고 손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장단을 맞추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형태면에서는 작대무(作隊舞)이면서 원무(圓舞)나 윤무(輪舞)의 동작선이 연상된다. 주로 ‘답지저양(躡地低昂)’-땅에 발을 디디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며 하늘을 올려보고 내려 보는 동작을 행하거나 ‘수족상응(手足相應)’-손발을 맞추거나 또는 춤추는 이들마다 손발이 잘 맞아 제각기 춤을 잘 추는 모양새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탁무’의 기록으로 보아 북이나 방울 등 악기나 도구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4) 김매자(1995), p.7.

25) 『삼국지』위지 동이전 한조,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躡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전해중(1985), pp.33-34. 재인용).

26) 중국무도 사전에 보면 탁무는 한나라와 위나라에서 추던 잡희로서 청상악의 하나인데 ‘탁’을 들고 추는 춤을 말한다. ‘탁’은 그 모양이 큰 방울과 같은 것으로, 문(文)과 연관된 것에는 ‘나무(木)로 된 탁’을 흔들고, 무(武)와 연관된 일에는 ‘쇠(金)로 된 탁’을 썼다고 한다. 앞서 밟을 친 춤에 관한 언급으로 여러 사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따르는 작대무(作隊舞)이면서 되돌아 빙빙 도는 원무(圓舞) 또는 윤무(輪舞) 등의 동작선이 연상된다. 오늘날, 소고춤이나 풍물춤, 강강술래와 같은 형태로 짐작된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심기에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인 두레굿 또는 풍물놀이 등이 이러한 고대의 유풍에서 비롯되었으며, 민속무용 중 현대까지 형태가 남아있는 특히 강강술래와 비슷한 형태로 짐작된다.

두 번째 기사의 천군이 농경의례와 관련이 있고 또 그 의례를 주관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나, 국중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축제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 또는 왕실의 주관자가 있었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군은 농경 계절제와 기타 국가의 중대사에서 제주(祭主)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귀신(鬼神)과 천신(天神)으로 달리 표현되었지만 결국은 동일한 대상의 신으로 보인다.

끝으로 별읍인 ‘소도(蘇塗)에 방울과 북이 달린 대목을 설치한다’는 대목은 오늘날의 동제에서 보이는 솟대와 같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도에 관한 연구는 그 해석이 다양하지만 주로 정치사적 의미에 관한 것임으로 그러한 참고자료에서 가무적 요소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 그중에서 신채호는 “소도는 제천하는 땅이라 하고 소도제단(蘇塗祭壇)을 관리하는 무사단이 나중에 화랑도로 발전했다”고 주장<sup>27)</sup> 하였다.

이를 보면 사회기강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랑이 신라의 팔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채호의 주장은 소도를 신라 팔관회의 기원으로 풀이할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해준다.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원문에서 계절제와 관련된 대목에서는 제사를 제귀신(祭鬼神)이라 하고 천군이 언급된 대목에서는 신귀신(信鬼神)이라 하고 소도 관련부분에서는 사귀신(事鬼神)등 의례형식을 제(祭), 신(信), 사(事) 등으로 달리 썼는데 글자를 달리 쓴 것으로 보아서 의례절차 및 규모,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다.

고대 제례에 관한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기록들을 정리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대 제천의식

	부여	고구려	예	삼한
제명	영고(迎鼓)	동맹(東盟)	무천(舞天)	소도(蘇塗)
시기	정월	10월	10월	5월, 10월
제사 대상	하늘 (天)	하늘 (天), 수신(隧神)	하늘 (天), 호신(虎神)	하늘 (天), 귀신(鬼神)
형태	음주가무	음주가무	음주가무	음주가무

### III. 집단무에서 보여지는 기능 및 미의식

#### 1. 천인합일(天人合一)이자 신인화동(神人和同)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제례의 대상이 한 결 같이 천신(天神)이었다는

27) 신채호(1979), 『조선상고문화사 上』(서울: 형설출판사), p.372.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민족의 의식 속에는 경천사상(敬天思想)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민족의 경천의 표출이 바로 하늘(天)에 드리는 제사인 제천의식(祭天儀式)이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늘(天)은 다다를 수 없거나 우리와 전혀 다르며 지극히 높은 지고신(至高神)이 아니라, 인격신(人格神)으로서 우리민족의 보호자이자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아들을 내려 보내고 그 자손이 우리민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이자 신인화동(神人和同)은 우리민족의 의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고대 제천의식에서의 춤은 하늘과 인간의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의식 활동이다. 춤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합일(合一)되고, 인간과 신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 하늘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의 화동(和同)에서 이루어지는 춤은 신을 뜻을 받들고 밝음<sup>28)</sup>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신화는 제의의 말 풀이(logomenon)이고 제의는 신화의 몸짓 풀이(dromenon)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신화가 이론적 구조라면 제의는 실천적 형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와 연계해 사고해 봄직하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신화가 수록된 문헌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총 4권이다.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제1권 기이(奇異) 제1고조선(왕검조선(王儉朝鮮))조 제2부 고기(古記) 일부분을 인용한다.

옛날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이 자주 천하를 차지할 뜻을 두어 인간이 사는 세상을 탐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산을 내려다보니 홍익인간(弘益人間)하기 좋았다. 이에 환인은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환웅에게 주어 인간사를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태백산정(太白山頂)에 있는 신단수 밑에 내려왔다. 여기를 신시(神市)라 하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불렀다. 환웅천왕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닐고 곡식(穀食), 수명(壽命), 질병(疾病), 선악(善惡) 등을 주관하였으며,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이화했다. 이때 범과 곰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에게 빌어 사람 되기를 원했다. 이때 환웅천왕이 신령스런 쑥 한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길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백일동안 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삼칠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여신(女神)으로 변했으나 범은 조심하지 못해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녀(熊女)는 결혼해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날마다 단수 밑에서 잉태(孕胎)하기를 축원했다. 웅(雄)이 거짓 변하여 그와 결혼하니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칭하였다. 단군은 요(堯) 임금이 즉위한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으며 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휼산(弓忽山) 혹은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하니, 기묘년에 기자(箕子)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에 옮겼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산신(山神)이 되니 나이 1908세였다고 한다.<sup>29)</sup>

28) ‘밝음’은 한국문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미의식이다. 고대 우리민족은 하느님(天神)을 섬겼다. 환웅의 ‘환(桓)’ 또한 밝다는 뜻으로, 天은 태양과 같이 ‘불’이 있는 곳 즉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였다. 춤은 태양숭배의 모습이자 하늘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최남선의 우리의 문화를 ‘불함문화(不咸文化)’라고 말했다. 불함은 밝음의 ‘불’에 대한 한자식 표기로 ‘불’, ‘한’, ‘술’은 하늘을 숭배하는 북방유목민족 계열의 문화와 연계된다.

29) 『삼국유사』 왕력 기이 제1고조선 왕검조선조,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 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日,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祖即位五十年庚寅(唐高祖即位元年



단군신화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세상을 교화(敎化)한다는 내용과 곰이 금기(禁忌)를 통해 인간이 되고 환웅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천(天)의 강림(降臨)과 지(地)의 승화(昇華), 천지의 결합과 탄생(시조)이 핵심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환인-환웅-단군왕검으로 이어지는 명칭이다. 환인은 한자어로 표기되기 전에 ‘하느님’, ‘수리남’이나 ‘한님’, ‘한인’등으로 불렸을 가능성<sup>30)</sup>이 있으며, 조흥윤은 “고대 제천의 한자표기를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 곳’ 내지 ‘하느님 곳’으로 풀이 할 수 있다”<sup>31)</sup>고 주장하면서 제천의식을 무(巫)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군신화와 제천의 무(巫) 관련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실로 단군은 군주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샤만(Shaman)의 직분을 맡은 것<sup>32)</sup>인데 이것은 또한 고조선시대의 무당의 직분을 맡은 것<sup>33)</sup>으로 볼 수 있다.

단군의 원음이라고 생각되는 ‘당굴’은 천주의 계통을 받은 ‘천군’으로 인간의 존경을 받아 영위(靈威)가 컸을 뿐 아니라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고 무당과 상통하는 말이다<sup>34)</sup>. 최남선은 “하늘과 통하는 무당을 ‘당굴무당’이라고 풀이”<sup>35)</sup>하였다. 또한 왕검의 ‘검’은 ‘곰(熊)’과 신령을 뜻하는 알타이어 ‘캄’(Kam: 天神)과 같고 결국 ‘단군왕검’은 ‘tengri-kam’에서 유래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삼한의 ‘천군’, 호남지방의 세습무당인 ‘당굴’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천손의 영위를 과시하며 이를 숭배하는 의식을 통해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제의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로 어우러져 모든 사람이 상하차별 없이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점이며, 이것은 한민족만의 독특한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국에서처럼 왕만이 천자(天子)로서 독행(獨行)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함으로써 천손(天孫), 혹은 신인화동(神人和同)의 의식을 고취했다는 점을 유의해 봄직하다.

부여의 영고는 천(天)을 맞이하기 위해 북을 치며 의례를 행했고, 고구려의 동맹(東盟)은 동명(東明)이라고도 표기되기도 했는데, 그 제신(祭神)은 주몽의 탄생신화에 천제(天帝)라고 표현된 하느님인 동시에 천자(天子)인 시조 주몽으로 양면성을 가졌다. 그런데 고대에 있어 시조란 사실상 천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천신을 전제하지 않고는 시조신숭배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에서는 춤으로써 하늘에 제사를 지냈기에 이를 무천(舞天)이라 하였다. 남쪽 한(韓)에서는 소도(蘇塗)라는 성역에서 대목(大木)을 세우고 하늘의 신을 맞이하여 천제(天祭)를 드렸다.

‘북’, ‘시조신 숭배’, ‘춤’, ‘성목(聖木)’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들이 단순한 제천의례가 아니라 천이 이 땅에 강림하는 신화 속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제천의식은 국중

戊辰，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疑其未實，都平壤城(今西京)，始稱朝鮮。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又名弓(一作方)忽山，又今彌達，御國一千五百年。周虎王即位己卯，封箕子於朝鮮。壇君乃移於藏唐京，後遷隱於阿斯達爲山神，壽一千九百八歲。”(김두진(1999),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서울: 일조각), pp. 27-28, 재인용).

30) 최동(1969), 『한국상고민족사』(서울: 동국문화사), pp. 177-178.

31) 조흥윤(1993), 천신에 관하여, 『동방학지』(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 22.

32) 임동권(1987), 『한국민속학논고』(서울: 집문당), p. 370.

33) 도광순(1988),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문화』(서울: 교문사), p. 30.

34) 이병옥(1993), p. 59.

35) 임동권(1987), p. 370.

대회(國中大會)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국적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1949년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안악 제3호 고분의 대행렬도(大行列圖)를 보면 제의의 화려하고 성대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본래 제천의례였던 고대의 제례는 농경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차츰 농경의례를 겸한 제례로 변모해 갔다. 10월의 제천의례는 추수제를 겸하게 된 것이다. 보다 농사가 발전된 남쪽의 삼한 지역에서는 5월에 파종이 끝났을 때에도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제례로 천제를 드리게 되었다. 한국인의 제례는 제천의례와 농경의례의 동시적 융합으로 발전해 갔는데, 이것은 고대신화에서 천신의 강림과 지모신으로서 인간의 융합을 원형 모델로 따른 것임에 틀림이 없다.

## 2. 놀이(유희)

두 번째 발견되는 공통점은 “연일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음주가무로써 하였다”는 그 제전(祭典)적 성격이다.

네덜란드 문화비평가인 호이징가(Johan Huizinga, 1872-1945)는 인간을 ‘유희적 인간(Homo Ludens)’이라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된 것”이며 ‘유희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의 생활 자체이자 문화현상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문화 속에는 놀이라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예술과 놀이 사이에는 아갈마(Agalma) 즉 기쁨, 환희라는 놀이의 요소인 유희성이 내재 한다’<sup>36)</sup>고 본다. 이는 예술과 문화가 유희로부터 발전해 왔음을 밝히는 것으로, 고대 제천의식 속 원형적(原型的)행위 속에는 처음부터 ‘놀이’가 스며있다고 보는 논증이 된다.

이러한 인간의 유희본능에서 가장 먼저 표출될 수 있는 유희형태는 아마도 ‘춤’일 것이다. 물론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모든 몸동작이 예술적 개념의 춤이라 부를 수 없겠지만,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천의식에 나타난 악·가·무 미분화의 집단무 형태의 춤이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자연발생적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춤은 인간의 유희본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김매자의 주장<sup>37)</sup>을 뒷받침 할 수 있겠다.

정기적으로 행해진 종교적 제전을 통해서 성소(聖所)의 종교성은 끊임없이 회복되었는데, 특히 수확제에서는 음주의 광란(orgy)이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즉 집단적인 제전으로서의 춤과 노래는 종교적으로는 영신(迎神)의 제의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억압된 인간욕구를 합법적으로 발산케 하는 비상구의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집단의 결합력을 높여주었다고 보인다.

여기서 술은 단순한 알콜이 아니고, 노래와 춤은 단순한 노래와 춤이 아니다. 단군신화 속에서 쑥과 마늘이 신인접촉의 매개체였던 것처럼, 제를 지낼 때의 음주가무하는 것은 인간들의 단순한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인간이 교제하는 종교적 기술이자 제의의 일부이다. 음주가무를 통해 인습적이고 사회적인 온갖 인간이 쓴 탈들이 벗겨지고 신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존재, 접신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36) J. 호이징가(1997), 『호모루덴스』, 김윤수(역)(서울: 까치사), pp.18-36.

37) 김매자(1995), p.14.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법석을 떠는(orgiastic) 음주와 가무가 지녔던 종교적 의미는 그것이 군중을 집단적인 황홀경(恍惚境, ecstasy)으로 이끄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엑스타시 속에서 탈아(脫我)의 경지를 체험했고 거기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는 신비체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하늘과 땅 또는 신과 인간 사이의 결혼이라는 신화적 조형(祖型)을 제례를 통해 재현한 것이다.

즉 음주가무를 통한 망아경(亡兒境)의 체험은 강신(降神)체험인 동시에 지모신의 죽음과 재생이라는 종교적 승화의 재현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원융통합(圓融統合)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종교적 영성이 제의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연일 밤낮으로 술 마시고 집단으로 춤출 때의 신들림, 이러한 종교적 현상은 오늘날까지 종교, 예술작품, 놀이문화 등 문화 전반에 제질로서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한 번 모였다 하면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놓고 돌아가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한국인의 놀이모습은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의 비상한 주목을 받아 왔다.

서연호는 ‘민족문화와 축제문화’란 논문에서 인간의 삶이 일과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주하며 “생산이나 창작 혹은 어떤 실체적인 이득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을 ‘일’이라 하며 여가나 휴식, 예술 감상이나 종교적 기원 혹은 어떤 오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을 ‘놀이’라고” 구분하며 놀이의 바람직한 양상을 고대 제천의식에서 발견된다고 보고 있으며 축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사 또는 제사를 위해 벌리는 큰 규모의 행사를 축제라 하는데 고유어로는 ‘큰굿’, ‘큰잔치’, ‘대동놀이’ 등으로 불려왔다. 축제는 생활 공동체 혹은 일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이것은 생산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벌이는 제사이자 잔치이며 놀이다. 또한 혈연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즉 씨족, 부족, 민족 등 동일한 종상과 핏줄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제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의식공동체에 의해 성립된다. 혈연이나 지역성을 초월하여 온 인류 내지 범세계적인 축제의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현장성, 집단성, 신명성, 가장성을 드러낸다. 소규모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놀이를 축제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 참여에 의해 성취되고 강한 현장적 성격을 나타낸다. 모든 행위는 현장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그 자리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축제는 일회적인 것인 동시에 전승되어 간다. 참여자들의 가장된 행위와 신명이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축제는 완성되어 간다. 축제야말로 현장을 통해 살아나는 유의미한 놀이이자 창조적인 의식이며, 민중의 즐거운 몸짓이다.<sup>38)</sup>

서연호의 정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축제를 고유어로 ‘굿’이라고 불렀다는 대목이다. ‘굿’이란 낱말의 본디 뜻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무당이 노래하고 춤추며 귀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의식, 연극 또는 여럿이 모여 법석거리는 구경거리 등으로 나와 있다. 사전의 정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굿은 ‘무의식’, ‘연극’ 또는 ‘구경거리’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병호는 춤판의 구조와 특징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춤은 단순한 놀이판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무속의례를 비롯하여 불교의식이나 유교의식 등 종교적 의례와 농경생활, 명절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라왔다.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의논하고 함께 노는 그 공동의 자리를 ‘판’이라 하고 이곳에서

38) 이용권(1987), 『한국의 축제』(서울: 한국문화진흥원), p.9.

행한 판 놀이를 한편으로 ‘축제’라 부르기도 한다”<sup>39)</sup>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문화양식 중의 하나의 축제인데 이러한 축제를 고유어로 ‘굿’이라 불렀고 또 굿이란 낱말에서 출발하여 그 의미가 무의, 제 의식, 연극, 구경거리 등을 뜻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가무가 수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상에 나타난 제 의식 연구를 통해 축제와 제의식의 위상을 엄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의는 축제나 의례의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서 참여자들의 꿈이나 소망, 욕망을 기원하는 포괄적 종교양식이자 제사의례로 체계화되었다. 인간은 진보적인 희망을 지닌 유기체이다. 진보적인 희망이야말로 축제 발상의 근원이다. 풍요와 다수화, 안전과 행복, 치병(治病), 혈통의 보전, 망자의 천도와 위업계승 등을 위해서 제의는 발상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 실현화시키기 위하여 주술적이고 모의적이고 연극적인 행위가 제의의 방식을 형성시켰다. 제의적 행위는 그 자체가 기원의 표상이자 참가자들에게는 일종의 놀이이며 실제로는 연희나 오락으로 형식화되기에 이르렀다. 무(巫)가 중심이 되는 굿에서 무의 행위는 바로 제의적 행위의 형성을 보인다.

제의에 대한 위의 정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가 중심이 되는 굿에서 무의 행위는 제의적 행위의 원형성을 보인다는 마지막 대목이다. 이것은 제의의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무자로 간주되는 단군왕검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제의식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제 또는 제 의식에 반드시 가무가 수반되었다고 했는데 특히 연희와 놀이의 가장 보편적 행위형태 중의 하나로서 춤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간단히 ‘인류의 문화는 곧 제의식이며, 제 의식은 곧 춤이다’라고 도식화 할 수 있다. 즉 인류의 문화는 춤으로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의와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져 모든 사람이 상하 차별 없이 음주와 가무를 즐겼던 것은 고대 동이족의 독특한 미의식이었다.

### 3. 씻김(정화)과 신명

제천의식에 관한 기록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것이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부여의 영고에서는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여 사면 조처를 내렸으며, 고구려에서는 감옥이 없었다. 한에서는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있어 죄를 지은 자가 그곳에 도망쳐 가면 잡아올 수 없었다. 이는 당시 종교의 기능이 세속의 질곡 갈등으로부터 해방된 성스러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숨통을 틔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몰수하고 사회풍속을 어지럽히는 절도와 남녀의 음란행위, 부인들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징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천의식에서 사회 전반적인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는 정화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정화 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정화 역시 이루어지는데, 특히 술을 동반한 노래와 춤은 사람들을 엑스타시로 이끄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명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며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음주가무를 수반한 집단적 춤을 통해 이것을 즐기고 풍요를 기원하고 ‘일탈’이라는 마음의 해방감으

39) 정병호(1999), p.33.

로부터 그 시대의 구성원이 모든 대립적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체로서 화합하고 종족을 결속시키고자 했던 전일(全一)에의 지향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고달팠던 일상을 축제와 함께 잠시 내려둠으로써 행복과 희망으로 한 마음이 된다. 이 때 만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무아지경에 이르러 신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씻김은 성(聖)과 속(俗)의 만남에서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신을 청하고 노는 것 즉, 성스러운 시·공간을 마련하여 성과 속이 어우러지게 하는 것일 씻김의 장치인 것이다.

채희완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제천의식의 음주가무의 풍속과 공동체를 확인하는 축제문화를 통해 ‘마당’ 혹은 ‘판’의 의미를 논의 할 수 있다고 본다. 판이란 ‘판에 박은 듯하다’라는 말이 있듯 일정한 틀 속의 짜임새를 지칭하는 동시에, 이판사반의 씨름판처럼 죽을 판 살판으로 치열한 그 무엇이 일어나 판벌임 끝에 결국 판가름을 내는 연행현장이기도 하다. 마당은 역동적인 동참의 상황현장이고, 본래는 쉼터, 놀이터, 만남의 자리 일터 등 삶의 현장이요, 유동하는 상황이고 국면을 뜻한다. 속된 것과 거룩함이 넘나들고, 일상적 생활공간이 각종 금기가 지켜지는 성스러운 장소로 뒤바뀌는 성·속(聖·俗)이 넘나드는 틈서리다. 그리고 이것은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시·공간적 의미를 갖는다.<sup>40)</sup>

신명이란 ‘우주 생명력, 즉 기(氣)가 교합된 상태의 자아’로 우주 생명이 인간내면에 지퍼들어 자기 안에 우주가 확대되어 발현되는 영성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명은 한국의 샤머니즘적 전통에서 거론되는 신(神)이 오고 들며 오르고 내리고 지퍼 바람나는 집신체험이기도 하다.<sup>41)</sup>

그러므로 신명은 예술창조 과정에서의 내적 충동으로서 열정, 열광, 영감, 그리고 향수체험으로서의 출산적 기운인 동시에 무한한 창조적 계기를 마련하는 우주적 생명 체험이자 민중 미의식의 모체이다.

인간의 감정이 고조될수록 적극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듯 나타나는 극치의 현상이 바로 신명의 춤이다. 신명은 평상시에는 억압되어 있다 계기가 되면 풀려나오는 억압과 해방의 순환 과정 속에 존재하는 내적인 힘이며, 인간이 그 존재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근원적인 힘이다. 우리 민족은 제천의식 속 집단무를 통해 ‘신명’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열정에 스스로없이 몸을 내맡기고 집단속에 녹아들어 한 개체로서 존재가 갖는 한계를 의식하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씻김(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Victor Turner가 지적했듯이 이런 공통축제는 신 앞에서 인간이 지닌 기본적 평등성과 인간 공동체성을 체험하게 하여 평상시에 존재하던 사회적 계층의 장벽이 무너지고 금기가 풀리는 기회였으며, 집단적 신명을 통해 내재적으로 응축된 불안한 정서를 마음껏 표출하고 억압된 생명력을 해방시키는 과정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춤은 인간의 종합 문화적 결정체인 동시에 움직임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춤미학의 단초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 아래 발생한 한국 고대인이 세계관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특히 고대

40) 채희완(1999), 한국연행 속에 숨어 있는 미학적 단초, 『미학예술학연구』9, pp.41-42.

41) 채희완(2010), 신명의 의미와 생성적 시공간, 『민족미학』9, p.75.

의 종합예술의 집약 형태인 제천의식 즉 제의(祭儀)에서 보여주는 집단무 속에는 한 민족의 중요한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제천’이란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으로 인간의 하늘로 표상되는 신의 경계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이때의 하늘은 지극히 높게 떠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상의 세계 즉, 수직적 관계의 천(天)이 아니라 신과 사람이 서로 회통하고 동격을 이루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공경과 섬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동역(同役)이기도 하다. 신인화동(神人和同)의 세계로 하늘의 일에 인간이 동참하고 동격을 이루는 천신의 의인화, 인간의 천신화를 뜻한다. 이를 맡은 사람은 천군(天君)이요 하늘의 제사장이 되었다.

단군신화에서 ‘단군’이라는 말에 제사장적 역할이 강조되고, 호남지역에서는 무당을 일컫는 말로 ‘당골’을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 춤의 정신은 고대 제천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고대인의 세계관으로부터 깊이 스며든 전통적인 사유방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제천의식인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삼한의 ‘소도’ 등 규모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국중대회를 통해 행해진 음주가무를 동반한 집단무의 형태를 통해 한국 춤 원류를 찾고 이들의 공통점을 통해 한국 춤의 미의식을 유추할 수 있었다.

고대의 제천의식 속에는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천에 기원하고 감사하는 제의적 성격, 왕권강화나 사회통합 외에도 음주가무의 동반한 집단무가 행해졌다. 인류학적 측면에서 예술과 종교는 충족되지 못한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지각이나 정서로 이를 어떤 행위로 방출하는 것이 춤일 것이다.

여기서 집단무의 형태는 대략 수십 인이 함께 일어서서 서로를 따르며 땅을 딛고 손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장단을 맞추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형태면에서는 작대무(作隊舞)이면서 원무나 윤무의 동작선이 연상된다. 주로 ‘답지저양(踏地低昂)’ 뜻을 풀이하면 땅에 발을 디디고 몸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며 하늘을 올려보고 내려 보는 동작을 행하거나 ‘수족상응(手足相應)’ 즉, 손발을 맞추거나 또는 춤추는 이들마다 손발이 잘 맞아 제각기 춤을 잘 추는 모양새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삼한의 경우 ‘탁무’의 기록으로 보아 북이나 방울 등 악기나 도구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춤을 한국 춤의 원류 보아도 무리함이 없으며, 이와 같은 집단무 속에는 우리 민족의 체험하고 이해하며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의 의식과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천손의 자손임을 과시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어 천인합일과 신인화동을 체험하고 ‘밝음’의 정신을 표현하는 장(場)이었으며 둘째, 연일 음주가무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유희적 본능을 스스로 없애고 이 표출한 축제이자 놀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셋째, 성(聖)과 속(俗)이 만나지고 무아지경(無我之境)에 빠져 억압된 본원적 생명력을 해방시키고 모든 것이 씻겨나가는 정화와 신명의 미의식이 펼쳐지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군 이래 고대사회에 형성된 이러한 민족제도의 원형은 이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정의 분리, 고대 국가의 성립, 유 불 도의 전래 및 수용 등을 거치면서 약화 변모되지만, 고려시대의 팔관회 연동회, 조선 조의 산신제 성황제를 거쳐 마을 굿으로서 오늘날 ‘농악’이나 ‘강강술래’ 등 민중 의식이나 춤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고대의 제천의식에 나타난 집단무의 기능과 미의식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만 이후 가락국이나 신라, 백제 등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김두진(1999). 『한국 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서울: 일조각.
- 김매자(1995). 『한국무용사』. 서울: 삼신각.
- 도광순(1988).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교문사.
- 성경린(1984). 『한국전통무용』. 서울: 일지사.
- 송수남(1988). 『한국무용사』. 서울: 도서출판 금광.
- 손진태(1948). 『조선민족사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신채호(1979). 『조선상고문화사 上』. 서울: 형설출판사.
- 이용권(1987). 『한국의 축제』. 서울: 한국문화진흥원.
- 임동권(1987). 『한국민속학론고』. 서울: 집문당.
- 정병호(1999). 『한국의 전통춤』. 서울: 집문당.
- 장사훈(1977). 『한국전통무용연구』. 서울: 일지사.
- 전해중(1985). 『동이전의 문헌적 연구』. 서울: 일조각.
- 최 동(1969). 『한국상고민족사』. 서울: 동국문화사.
- 호이징가 J.(1938). 『호모루덴스』. 김윤수(역). 서울: 까치사. 1997.
- 강봉룡(2014). ‘섬의 인문학’ 답론. 『도서문화』, 44: 7-35.
- 김광식(1989). 한국고대의 제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철순(1978). 한국의 춤(1). 『춤』, 1: 52-58.
- 이병옥(1993). 고대 한국무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내현(1988). 고조선과 삼한의 관계. 『한국학보』, 52: 119-124.
- 조흥운(1993). 천신에 관하여.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8-33.
- 채희완(1999). 한국연행 속에 숨어 있는 미학적 단초. 『미학예술학 연구』, 9: 38-52.
- \_\_\_\_\_(2010). 신명의 의미와 생성적 시공간. 『민족미학』, 9: 53-77.

논문투고일 2020. 08. 04.

심 사 일 2020. 08. 24.

심사완료일 2020. 09. 14.

## A Study on the Group Dancing Shown in Ancient Heaven-worshipping Rites of Korea

**Shin, HyoYoung**

Ph. D., Scienc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was able to find the original Korean dance through collective dances accompanied by drinking dances performed at national rituals, such as Buyeo's 'Yeonggo,' Goguryeo's 'Dongmaeng', Ye's 'Muchon' and Samhan's 'Sodo,' a representative ritual of sacrificial rites in ancient times, and to infer the sense of beauty of Korean dance from the common features of their dances.

In addition to the ritualistic nature of wishing and appreciating the harvest of the year, it can be seen that in ancient times, the playtul nature of experiencing the unity of heaven and human beings promoting the people's consciousness, the third, a new order, and the nature of social as well as personal purification (purification) and spirituality were implied.

**Keywords:** Original Korea dance(한국춤의 원류), Heaven-worshipping Rites(제천의례), unity of heaven and human beings(천인합일), Play(놀이), purification(정화)